

2024 신라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24. 7



변화의 중심, 새로운 도약
신라대학교

1

대학이념 및 경영

■ 평가결과 요약

- ▣ 1영역 대학이념 및 경영에 대한 평가결과 대학경영, 대학재정 2개 부문 모두 기준을 충족함
- ▣ 주요 현황
 - 교육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글로벌 지성인, 창의적 전문인, 도전적 감성인’이라는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6대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역량은 ‘학생역량 통합관리시스템(STEP)’을 통해 환류함
 - ‘지역 혁신과 성장을 선도하는 지·산·학 협력 Communiversity’이라는 비전과 5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20대 핵심프로젝트, 71개 프로젝트별 실행과제로 구성된 중장기발전계획 ‘지산학 협력 Communiversity(Ver 3.5)’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자체평가를 2년 주기로 실시함
 - 세입 중 등록금 비율의 최근 2년간 평균은 58.0%, 세입 중 기부금 비율의 최근 2년간 평균은 0.63%, 세입 중 법인전입금의 비율의 최근 2년간 평균은 0.41%로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음.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 및 전략에 따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반영함.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감사관련규정’ 및 ‘내부감사 규정’에 따른 내·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 결산공고 및 인트라넷에 공개함

■ 강점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워크숍, 공청회, 설문조사, 구성원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및 실천 가능한 실행계획 도출을 위해 노력함
- 대학 발전계획인 ‘지산학 협력 Communiversity(Ver 3.5)’ 추진을 통해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수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함
-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대학구성원 대표로 구성된 대학 재정 TF팀을 운영하고, 대학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타개할 정책으로 편제개편 강화, 평가제도 현실화, 보수체계 조정 및 현실화, 명예퇴직제도 현실화 등의 정책제안 및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
- 대학의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인트라넷에 공개하여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함

■ 문제점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및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하고 이를 통한 대학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학 생존전략 실행 및 점검이 미흡함
- 대학 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해 자체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대학재정의

제약으로 성과급 지급이 미흡함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있으나, 대학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한 재정의 정량적 목표 제시와 목표달성 점검이 부족함
- 입학정원의 감소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다양한 수입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법인 전입금 확충을 위한 노력과 수익성 확대 다각화가 필요함

■ 향후 발전방안

- 대학 인재상이 요구하는 다양한 핵심역량을 균형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특정 핵심역량에 치우친 학습역량 프로그램의 역량별 다양화 및 차별화가 필요함
-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젝트별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재정보호계획의 보완 및 점검이 필요함
- 대학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체계적으로 대학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 프로세스 고도화 및 선순환이 필요함
-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적 분석을 위해 관련 절차의 정례화가 필요함

2

교육

■ 평가결과 요약

■ 2영역 교육에 대한 평가결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의 2개 부문 모두 기준을 충족함

■ 주요 현황

- 교육목표 달성과 인재상 구현을 위해 학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 교양교육 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적절하게 편성·운영됨
- 교양교육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및 6대 핵심역량(하위역량 포함)에 따라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음. 기초필수교양은 세계화, 실용화, 인간화의 3개의 영역으로, 선택교양은 자유교양, 화랑교양, 브릿지 영역으로 분리되어 다양한 교과목이 균형 있게 개설됨
- 전공역량 중심의 전공교육과정이 구성되어 학과의 전공역량이 직업 및 진로와 연계되고 학과별 직업 및 진로 지정과목과 공통과목이 편성·운영됨. 또한 2022학년도부터 실무중심 모듈형(MD) 융합전공을 개설함으로써 전공교육과정의 사회 및 학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수업 운영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강의계획서 입력, 수강신청, 성적처리 등의 절차가 적절하고, 강의평가가 강의 유형별로 실시되어 그 결과가 학생에게 공개되며, 강의평가 하위 교수자에 대한 강의 개선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됨
- 성적관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보상과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음. 성적경고자는 학사지원팀, 학과(전공),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연계하여 성적경고자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성적경고자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 교수·학습 지원 및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인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육혁신원 내로 개편하여 학내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조직은 교수지원부, 학습지원부, 원격교육지원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임 연구·개발 인력이 확보되어 교수와 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강점

- 교양교육과정의 영역별 강좌당 평균 수강학생 수는 전체 23.5명으로 편성 기준인 50명 보다 낮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기초필수교양의 강좌당 평균 수강생은 16.5명 선을 유지하여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교양교육과 연계한 기초역량강화를 위한 체험형 비교과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으로 학생들의 핵심역량강화와 실무능력 향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다전공 이수율의 최근 2년간 평균은 약 9%로 높은 편이며 복수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을 활성화하고 이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점을 조정하여 운영함
- 지역사회, 산업체 및 졸업생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 요구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과 교육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수업평가 결과를 100% 전면 공개하고 있으며, 수업평가 결과 수업평가미흡 교수를 대상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교수법 재교육을 실시하고, 교수업적평가반영, 교원 승진 자격을 제한하는 등 수업의 질 제고에 수업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 교수·학습 지원 및 개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질 개선 및 내실화를 위해 PDCA 환류체계에 따라 프로그램 요구조사와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교수학습 운영계획(Plan)-교수학습 프로그램 실행(Do)-운영결과 평가 및 분석(Check)-평가결과 반영(Act)을 실행하고 있음
- ‘교육질개선 및 수요자만족도관리규정’ 마련, 수업평가 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 분석 및 반영,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안 수립 등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과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문제점

- 현재 운영되는 교양교육과정의 트랙제 운영과 교양학사학위제도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어 학생의 진로설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므로,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과과정 간의 연계성을 높여, 학생들이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생중심의 교육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함
- 교수역량강화를 위해 혁신적 교수법 도입과 다양한 교수법 지원 프로그램 및 교수자 유형별(신임/경력/전체교원), 학내 부서 및 단과대학과 협업으로 맞춤형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교수·학습지원 및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보장, 전문성 확보, 우수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전담연구원의 신분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향후 발전방안

-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교양강좌 분반 기준과 전공강좌 분반 기준, 선택교양 폐강 기준, 교양필수 폐강 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교양 및 전공의 강좌의 교육환경 개선 및 양질의 수업 제공이 가능함
-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강의평가 하위 교수자의 교수법 향상을 위한 외부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연수 및 컨설팅 지원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수·학습 지원 및 개선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의 신분 보장 대책 마련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각도(다양한 연수, 심포지엄, 워크숍 및 세미나에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최신 혁신적인 교수법 도입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설과 장비의 확충 및 보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3

교직원

■ 평가결과 요약

■ 3영역 교직원에 대한 평가결과 교수, 직원의 2개 부문 모두 기준을 충족함

■ 주요 현황

- 교원의 인사제도는 직제별로 별도의 ‘교원인사관련규정’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정년보장 및 재임용 등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음.
 업적평가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주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기준을 별도로 정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중임.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청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교원 포상, 연봉책정, 연구년제 교수 선발 등에 활용하는 등 교원의 인사관리 제도는 적절함
- 교육지원처는 교원 채용 인원, 분야 및 전공 확정, 교수업적평가 관리 및 시행, 교원 연구년제 관리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교육지원처에서 학과별 교원확보율, 퇴직 예정 교원, 수업 시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충원 학과의 충원 규모(초빙분야 및 인원)를 확정하면, 사무처에서 교원 채용 확정 인원에 대한 임용 절차 수행, 연구업적평가 결과를 활용한 교원임용 실적에 반영하는 등 교원인사업무가 체계적으로 분업화하여 운영중임. 이를 통해 업무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양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을 하고 있음
- 강사 강의료는 2년 평균 53,352.1원으로 기준값 46,000원을 충족하지만, 향후 수업 질 개선을 위해 증대할 필요가 있음
-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적절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연봉제교원 임용시기별 인상을 차등화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직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개선이 필요함. 교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은 적절함
-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의 최근 2년간 평균은 14,917.8천원으로 기준값 10,000천원을 충족함. 연구년제는 합리적으로 제정된 규정에 근거해 매학기 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며 연구년 기간을 1년(2개 학기) 원칙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할 수 있게 하여 교원의 연구년 기간 선택권을 확대함. 또한 연구년 신청 시 연대보증인 설정, 재정보증서 제출 등의 과도한 규제 폐지를 통한 교원 연구년 제도를 개선하였음
- 직원 1인당 학생수의 최근 2년간 평균은 33.2명으로 기준값 70명 이하를 충족함. 최근 2년

간 직원임용 비율은 평균 정규직 39.9%, 비정규직 비율은 6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직원의 직급별 비율은 대학정관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부서와 기관별로 적절하게 배정되어 있음.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재계약, 업무평가 등 직원의 인사제도는 ‘인사관련규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정되어 있으므로 투명하고 엄정하게 시행되고 있음. 직원의 업무성과평가는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승진, 전보, 교육 등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직원의 인사제도는 직원 인사와 보상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사협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수시로 규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음

-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과 직원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통해 조정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정규직 직원의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원의 보수는 정규직 직원의 보수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직원에 대한 복지혜택은 적정하며, 직원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직원들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음.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요구조사와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프로그램 개선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강점

- 교원과 직원의 대의기구인 교수평의원회와 직원노동조합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대학 정책 결정 및 인사제도 운영 전방에 걸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성원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있음
- 교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직원의 대학원 진학 시 학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는 업무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우수한 복리후생 제도로 평가 받고 있음

■ 문제점

-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범위가 재임용 및 승진 등 인사제도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비정년트랙교원 보수 체계는 학위, 역할, 직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되어 있으나, 하위 1, 2분위 조교수의 경우 낮은 보수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강사들을 위한 연구실 등 편의시설 제공 노력은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확대가 필요함
- 직원 전문성 개발 교육 체계는 갖춰져 있으나,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수요 조사 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전문성 개발 교육 참여가 업무 성과 향상 및 인사고과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필요함

■ 향후 발전방안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노력이 필요함

- 교수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다양성의 부족 및 예산 지원 규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며, 대학의 규모와 교원 수를 고려하여 예산 확대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연구년제는 규정은 잘 갖춰져 있으나, 실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임교원 수 및 대학 규모를 고려한 연구년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 제공 및 전문성 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직원의 대학원 진학 시 학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업무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우수한 복리후생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전 교직원에게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지원이 확대 적용된다면, 만족도 향상은 물론이고 구성원들의 전문성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임

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 평가결과 요약

- 4영역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에 대한 평가결과 교육시설, 학생지원의 2개 부문 모두 기준을 충족함
- 주요 현황
 -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및 실험·실습실 면적은 기준값을 충족하고,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도 기준값을 충족함. 냉·난방과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며, 일부 노후 시설은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냉난방의 경우 시설의 노후와는 무관하게 에너지절감의 정부시책에 따른 온도조절 등으로 다소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임.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보험가입 등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학생에게 안전한 실험·실습 환경을 제공함. 공동기기실 운영과 장비심의 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있는 장비구입 및 장비사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기숙사 및 학생 복지시설은 캠퍼스 환경에 맞게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전용실도 마련하고 있음. 학생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드백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은 시대적 트렌드와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배치를 하고 있으며 학내에서 일상적 생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고자 하며 학생 자치기구들과 수시로 논의하고 만족도 조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학생생활만족도를 최대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23년 5월부터 학생지원팀과 취·창업지원팀을 통합되어 학생지원처에서 학생업무와 취·창업업무를 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음
 - 취·창업업무 지원조직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취·창업지원팀이 있음
 -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STEP)을 통하여 학생지원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진로개발센터, 취·창업지원팀 등의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학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학생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로 환류를 하고 있음. 학생지원처를 중심으로

로 학생 행사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안전한 학생활동이 되도록 지도하고 하고 있음

- 장애학생 수가 타 대학에 비하여 많으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장애학생 지원 체계가 우수함

■ 장점

- 시대적 트렌드와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다양한 복지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학내에서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입학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ONE-STOP으로 학생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해외인턴십, AI솔루션을 통한 진로지도, 입학부터 졸업 후까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학생종합진로시스템인 STEP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도화함
-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진로개발센터, 장애인 지원센터 등 다양한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배치함
- 입학전형에서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장애학생을 별도 선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및 지원 체계가 우수함

■ 문제점

-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 및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일부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만족도로 인해 개선 및 리모델링이 요구됨
- 학생지원처 취·창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재학생수의 감소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로 인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학생지원처의 예산 인상이 어려움

■ 향후 발전방안

- 재학생수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학생지원서비스를 위한 예산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각종 국책사업의 유치를 통해 다양한 학생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육시설의 고도화, 첨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대책도 필요함
- 성인학습자, 외국인 학생, 장애학생,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학생 등 소수집단 학생들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함
-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갈등과 인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 평가결과 요약

- 5영역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학성과, 사회적 책무의 2개 부문에서 모두 기준을 충족함

■ 주요 현황

- 최근 2년간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을 네 가지 영역으로 평가한 결과, 1인당 저역서 실적은 기준값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 영역에서는 기준값을 초과하여 충족하였고, 실적의 합 또한 5.6으로 기준값 4를 월등히 상회함
- 2022년 취업률은 60.3%로 기준값인 50%를 상회함(2023년 취업률은 2024년 12월에 공시될 예정이므로, 최근 2년간의 졸업생 취업률을 산출할 수 없음)
- 재학생 및 졸업생의 교육 만족도 조사는 본교에서 자체 개발한 SEDUS-Q(Silla Education Service Quality Index)를 활용하여 매년 실시하며, 그 결과를 PDCA 체계에 따라 해당 부서의 교육과정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반영하고 있음. 2023년 교육 만족도 점수는 2022년 대비 모든 부문에서 상승함. 내부 교육 수요자인 재학생, 유학생, 교원, 직원의 점수는 5.1점 상승한 75.7점이었고, 1차 외부 교육 수요자인 졸업생과 학부모의 점수는 0.5점 상승한 71.9점임. 2차 외부 교육 수요자인 산업체와 지역사회는 5.0점 상승한 82.3점을 기록하였음
- ‘학칙’ 및 ‘봉사교과목 운영내규’를 통해 신라사회봉사단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국·내외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연 평균 33건이 있으며, 연 평균 1,179명의 학생, 교수,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를 위해 매년 6천만 원 이상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최근 2년 간 24건의 기술이전, 65건의 특허 출원, 232건의 외부 연구 과제 등 산학협력 실적을 통해 산업체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고교생 진로체험 행사, 고교 Summer/Winter School 등 지역사회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산업에 기여하고 있음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과 RIS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대학과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 및 대학 간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위한 행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 외부 연구 과제 수주를 통해 지역 산업체의 애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자체 등 지역 사회의 공익사업에도 기여하고 있음. 또한, 대학 내 공용장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산업체 및 기관에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산학 공동 연구가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로 2023년에는 가족회사가 334개로 전년 대비 62개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유료 가족회사도 11개가 등록되었음

■ 강점

- 전임교수의 연구 실적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등 모든 부문에서 교육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 되었음
- 기술이전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대학의 지식과 기술의 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문제점

- 연구 성과는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기부여 제공과 관리 체계가 필요함
- 취업률이 대학 기관인증평가 기준인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지역 4년제 대학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체 학과(학부, 전공)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취업률 유지 및 관

리가 필요함

- 가족회사의 경우, 기 체결된 기업체와의 산학협력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협정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발전방안

-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향상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저역서 실적을 높여야 함. 또한,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재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을 활성화 하여 지역 4년제 대학의 평균 취업률보다 상회할 필요가 있음